

예배순서

오늘은 추석입니다. 지난시간을 지켜주시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89장 다 같 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흔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3. 먼 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 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 도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힘들 때나 기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추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28편 1~6절 다 같 이

¹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²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³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올리브 나무 같으리로다
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⁵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⁶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 씬 식탁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가족 다 같 이

찬 송 찬송가 559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계절인 추석을 맞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참된 복에 대해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이렇게 풍성한 명절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누리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로 화답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식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의 모습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올리브나무)와 같습니다.
3절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묘사합니다.
포도나무는 기쁨과 풍요를,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마주 보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 시편이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한해를 살아가다보면 때로는 서운한 일도, 힘든 시간도 있었겠지만, 예수 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어린 감람나무로 단단하고 푸르게 자라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대를 이어 흘러가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축복합니다.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과 믿음의 유산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부모 세대를 거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가족이 누리는 평안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그저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보는 날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와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있는 우리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추석
가정예배
성명나무교회

